

한복 유형에 따른 선호배색 비교연구

김 선 아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여 360명을 대상으로 한복 유형에 따른 한복색과 배색의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설문지와 자극물을 이용한 조사연구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구성되는 여자한복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유형으로 나누어 한복배색에 관한 전통성 인지도와 배색선호도에는 한복의 유형별로 차이를 규명하고자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산술평균,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느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복색명에 대한 개념을 평가 결과 연령별,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다홍색과 색동이 가장 높은 전통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복의 색명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7가지 색상(녹색, 옥색, 다홍색, 송화색, 남색, 자주색, 색동)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배색의 전통성 평가를 위해 자극물로 제작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두 유형에 적용된 14가지 배색물을 평가한 결과 녹색과 다홍색, 송화색과 남색, 옥색과 남색, 황색과 남색 배색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한복 유형에 따른 배색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14가지 배색 가운데 7가지 배색(연분홍-남색, 녹색-다홍, 황색-다홍, 옥색-남색, 옥색-자주, 옥색-아청, 색동2-다홍)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복디자인의 배색 사용의 중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 기초자료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화와 한복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한복업체의 디자인전개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복디자인과 한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전통한복, 생활한복, 한복색, 한복배색, 선호배색

I. 서론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일상복으로 입혀졌던 한복은 서양복의 급속한 보급과 착용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의 형태적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복 전문 인력과 마케팅의 부진은 한복의 소재·색·형태 등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 특히 한복이 예복화 되어 가면서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장식적인 면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서양 의복에 비해 형태의 변화와 패턴의 다양화가 크지 않은 한복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색채라 하겠다.

이주현 등(2001)²⁾은 한복을 착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한복의 우아한 이미지와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 한복이 가진 가장 독특한 미는 색채이며 한복의 색채는 아름답고 화려하며 고전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한복의 아름다운 색채감각은 과거와 비교해서 정통성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복에서의 색채의 의미의 중요성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어진다.³⁾ 최은영(1999)의 연구⁴⁾에 의하면 전통미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민족의식이 생활한복 재구매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현상은 내적 귀속의식을 통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안전의 욕구와 우리의 것에 대한 보존의 의지가 외적인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생활한복에 있어서도 전통한복의 미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복의 색상이나 배색에 관한 연구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시행한 연구와 유물이나 회화에 표현된 한복배색을 분석한 연구 등이 선행되었으나 <표 1>, 대부분의 연구는 면선의 기본색 중심의 배색이미지나 배색조화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복의 유형과 디자인 또한 배색

의 평가와 선호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료되어지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구성되는 여자한복을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한복의 유형을 나누어 한복의 배색에 관한 전통성 인지도와 배색선호도에는 한복의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전통 의생활 문화의 발전과 한복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및 한복 업체의 디자인개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시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복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

전통복식에 사용된 색상분석에 의하면⁵⁾ 의복에서는 배색을 포함한 중간색이 많이 사용된 반면에 장신구들을 원색계통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고, 색상은 백색(W), 빨강색(7.5R), 노랑색(2.5R), 남색(7.5PB), 검정색(B) 등 오방색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다. 이지현(2007)⁶⁾은 저고리의 배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길, 깃, 쏘, 끝동, 고름의 색채특성을 비교한 결과 주조색인 길은 YR, Y색상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배색의 경우에는 R, YR, Y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 R은 가장 특징적인 배색색상으로 보고하였으며, 전통저고리는 넓은 면적의 배색에서는 다양한 색상을 저채도의 유사색조 조화를 이용하고 있고 좁은 면적의 배색에서는 인접색상을 중·저명도의 반대색조 조화를 이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유송옥(2001)⁷⁾은 일반적인 한복 배색에 대해 젊은 여자는 다홍치마에 색동 또는 노랑저고리, 연두저고리를 입고, 계례 때에는 옥색 회장저고리와 초록 당의, 원삼을 입었으며, 혼례시에는 다적색

<표 1> 한복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 내용
김양희, 소황옥(1995)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나타난 배색 연구
이현화(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분석
강경자(2001)	한복배색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 지각반응: 톤인톤 배색 중심
이세리, 이경자(2001)	조선후기 복식유물에 나타난 배색 연구
강경자(2002)	한복배색 조화감에 대한 한 미 여대생 지각반응: 톤온톤 배색중심
임원선(2002)	한국전통복식의 배색이미지 연구
강경자, 문주영(2004)	한복배색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 지각반응: 유채색 무채색 중심
강경자, 최수경(2005)	배색방법이 한복착용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톤인톤 배색 중심
강경자, 추미선, 팽숙경(2005)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 비교: 톤온톤 배색 중심
강경자, 정복남(2005)	치마저고리 배색에 대한 이미지지각
강경자, 임지영(2005)	톤온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강경자, 정수진(2005)	한복배색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 지각반응: 콘트라스트 배색 중심
강경자, 문주영(2005)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조화감 비교연구
김미진, 조우현(2006)	한국근대서양화에 표현된 배색의 구조 분석
이영혜, 강순제(2007)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배색 경향 분석
강경자, 정복남, 문주영(2007)	유채색과 무채색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강경자, 정수진(2007)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이재은, 박현숙(2007)	전통한복배색의 현대적 적용방안 연구: 영화스캔들 중심으로
이지현(2007)	조선시대 저고리 색채와 배색의 특성 연구
김선아(2008)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조선시대 치마저고리 배색 특성 고찰
김선아(2008)	여자한복 배색의 전통성평가와 배색이미지 연구
박훈순, 조우현(2009)	조선후기 여자저고리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치마와 노랑삼회장 저고리에 활옷, 중년여자는 남색치마, 회색치마 또는 자주색 치마에 옥색저고리, 연분홍저고리, 미색저고리를 입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은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한복 배색에 관한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현화(1997)⁸⁾는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있어 색상조화가 가장 큰 중심특질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혜숙, 김재숙(1998)⁹⁾은 여자 저고리와 치마에 적용된 색조합연구에서 남색이 평가성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빨간색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며 긍정적인 색이라 하였다. 강경자와 공동연구자들(2004)¹⁰⁾은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톤인톤, 톤온톤, 무채색과

유채색의 한복배색에 관한 조화감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조화-부조화라고 지각하는 배색이 구분되어지고 이들 배색의 조화범위가 문화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국 여대생 모두 톤인톤,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보다 톤온톤 배색의 조화 범위가 넓게 나타나 색상보다는 명도의 차이가 조화감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영혜, 강순제(2007)¹¹⁾는 2000년대 여자 한복의 배색 연구 결과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한 대비 배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색계열과 유사색의 한복 배색이 그 다음으로 많음을 보고하면서 전통적인 색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대 한복배색의 시대적 변화 연구를 제안하였다. 김선아(200

<표 2> 한복배색 선호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내용
강혜원, 고에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김선아, 황춘섭(2003)	한복의 전통배색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강경자, 팽숙경(2004)	한복의 톤온톤 배색의 선호도연구
강경자, 최수경(2005)	한복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연구: 빨간색 저고리의 톤 변화를 중심으로
강경자, 성남숙(2006)	노랑색 저고리와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 선호도연구

8)12)는 「가례도감의궤」에 표현되어 있는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사용된 색의 이름을 복식의 착용자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자적색저고리와 같은 유사색의 배색, 홍색치마에 초록저고리와 같은 보색의 배색, 자적색이나 남색으로 동색의 치마·저고리 배색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한복의 선호배색에 관한 선행연구

색채선호는 사람들의 습관, 시대유행과 같은 사회적 관습적 요인과 선호대상, 사물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 <표 2>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한복배색의 선호도 관련 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강경자, 최수경(2005)13)은 배색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조화감 평가는 배색에 대한 개인의 선호정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고, 선호정도에서 문화 간에 차이가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강혜원, 고에란(1991)14)은 여대생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 연구결과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선호하는 배색으로 분홍저고리와 보라색치마의 배색을 보고하였다. 강경자, 팽숙경(2004)15)은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의 톤온톤 배색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한국학생은 빨강, 노랑, 초록 3색의 명도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났으나 미국 학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동일 톤 배색에 대해 미국학생은 선호하나 한국학생은 선호하지 않

아 이색배색에 대한 한국학생의 선호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선아, 황춘섭(2003)의 연구16)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한복의 전통배색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한복의 전통배색 선호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강경자, 최수경(2005)17)은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라이트 톤 조합을 선호하였으며,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 등 동일한 톤 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경자, 성남숙(2006)의 연구18)에서는 4가지의 노랑저고리와 4가지 톤의 6가지 치마의 배색, 4가지 무채색 치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선호되는 배색의 수가 40개, 미국의 경우 30개로 나타나 노랑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른 배색을 선호하는 범위가 미국여대생보다 한국여대생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복의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뿐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문화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배색 개념 및 선호도를 알아봄으로서 한복디자인의 발전과 마케팅 분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표본은 편의 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20대 부터 40대까지의 성인 남·여로서 서울·경기지역 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디자인전공 학생 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최종 360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32명, 30대 148명, 40대 80명이었으며, 성별분포도는 남성141명, 여성 219 명으로 여성의 분포가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20대는 남자 31.2%, 여자 68.8%, 30대는 남자 28.5%, 여자 71.5%, 40대는 남자 12.9%, 여자 8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한복소유도 조사결과, 소유하고 있는 한복의 전체 평균은 1.83 벌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는 0.69벌, 30대는 1.78벌, 40대는 3.02벌을 소유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로는 자극물과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황춘섭(1997)²⁰, 백선원(1989)²¹, 김선아, 황춘섭 (2003)²²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을 근거로 하여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에 근거 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보안한 후 이를 최종 설 문지로 사용하였으며 평가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극물제작에 필요한 한복의 배색 선정을 위해 조선시대 문헌 및 현존하는 유 물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배색과 비교하여 그 빈 도가 가장 높은 30배색²³ 중 전통복식학계 전문가 집단 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14가 지 배색을 본 연구의 한복배색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복의 유형을 전통한복과 생활한 복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통복식 전문가 4인의 자문을 통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대표적 유형이라 판단되는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

<표 3> 자극물의 색값

색명 ¹⁹⁾	용도	Munsell			Lab		
		H	V	C	L	a	b
황색	저고리	2.7Y	8.1	8.2	82.05	+0.96	+55.73
송화색	저고리	0.1Y	8.0	4.1	81.04	+3.84	+26.54
연분홍색	저고리	0.2RP	7.8	5.6	78.99	+21.96	-9.19
진분홍색	저고리	4.3RP	5.7	12.2	57.75	+50.66	-8.68
옥색	저고리	0.3G	6.4	8.1	65.33	-39.90	+31.91
녹색	저고리	0.5G	6.5	7.8	65.74	-39.08	+30.04
다홍색	치마	2.8R	4.0	11.5	40.62	+48.96	+17.03
남색	치마	5.1PB	2.8	6.2	28.76	+4.14	-25.28
아청색	치마	9.5B	2.5	2.1	25.33	-2.75	-8.28
자주색	깃·고름	5.3R	6.0	1.7	61.42	+7.34	+1.84
연두색	저고리·색동	2.0Y	8.4	3.2	85.40	+0.43	+22.08

<표 4> 색동저고리에 사용된 배색순서

색동1	연두 길	다홍	백	청	황	다홍	녹	청	황	다홍	백	청	황	다홍	녹	청	황	다홍	백	청	황	다홍
색동2	연두 길	다홍	황	분홍	청	백	녹	다홍	황	연분 홍	청	백	연두	다홍	황	청	진분 홍	백	녹	연 분홍	황	다홍

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홍저고리-남색치마, 색동1저고리-다홍치마 배색의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각각 1벌씩 총 4벌을 제작하였다. 가외변인 통제(머리모양, 화장, 자세 등)를 위해 1인의 모델에게 4점을 모두 착용시켜 사진을 촬영 한 후 분홍-남색, 색동-다홍을 제외한 나머지 12가지 배색 사진을 출력²⁴⁾하였다. 최종 선정된 28점의 사진 자극물은 배색건본의 색값과의 일치도 확인 및 배색 선정에 참여하였던 평가자들의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출력에 사용된 한복자극물 배색의 색값은 <표 3>과 같으며, 다색배색으로 선정된 색동저고리²⁵⁾의 2가지 배색순서는 <표 4>와 같다.

자극물 없이 한복의 색상명만을 제시 한 후 전통성에 대한 느낌과 좋아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제시된 한복색명의 색상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황색은 노랑색, 송화색은 연노랑색, 아청색은 진초록색을 함께 표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복의 유형별로 제작된 자극물을 제시한 후 배색의 선호하는 정도를 5점 척

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산술평균,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한복색명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전통적인 느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복색명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색상을 자극물 없이 색명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연령별,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색명 가운데 다홍색과 색동이 가장 높은 전통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색, 황색, 남색 또한 전통적인 한복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한복색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한복 색이름 \ 연령	20대 (n=132)	30대 (n=148)	40대 (n=80)	전체 (N=360)	F값	남자 (n=141)	여자 (n=219)	t값
녹색	3.06A	3.76B	3.85B	3.55	10.23***	3.72	3.38	4.67*
옥색	3.97A	3.95A	4.01A	3.97	6.55	3.89	4.05	-2.56
황색(노랑색)	4.05A	3.85B	3.96A	3.95	13.02***	4.12	3.78	4.82*
다홍색	4.12A	4.08A	4.10A	4.10	5.98	4.05	4.15	-2.20
송화색 (연노랑색)	2.82A	3.27B	3.94C	3.34	17.21***	3.56	3.12	5.67*
연분홍	3.18A	3.67B	3.85C	3.57	12.09**	3.36	3.78	-5.32*
남색	3.65A	3.71A	3.82B	3.72	11.02**	3.45	3.99	-7.69**
진분홍색	3.45A	3.78B	3.82B	3.68	10.95*	3.65	3.71	-1.86
자주색	3.86A	3.89A	3.91A	3.88	7.23	3.84	3.94	-2.17
아청색 (진초록색)	3.12A	3.57B	3.72C	3.47	15.96***	3.56	3.38	2.92
연두색	3.50A	3.49A	3.43A	3.51	6.87	3.43	3.59	-2.47
색동	4.16A	4.13A	4.15A	4.09	7.92	4.05	4.13	-1.93

*p≤ .05 **p≤ .01 ***p≤ .001

<표 6> 한복색명에 대한 연령별, 성별 선호도 차이

한복 색이름 \ 연령	20대 (n=132)	30대 (n=148)	40대 (n=80)	전체 (N=360)	F값	남자 (n=141)	여자 (n=219)	t값
녹색	3.56A	3.23B	2.78C	3.19	13.78***	3.59	2.79	8.91**
옥색	2.65A	3.66B	3.82C	3.37	15.92***	3.45	3.29	2.53
황색(노랑색)	3.89A	3.93A	3.95A	3.92	6.20	3.85	3.99	-2.37
다홍색	3.97A	4.15B	4.08B	4.06	11.76**	3.98	4.13	-1.79
송화색 (연노랑색)	3.88A	3.94A	3.65B	3.82	9.58**	3.67	3.97	-4.21*
연분홍	3.89A	4.11B	4.04B	4.01	11.95**	3.91	4.11	-3.09
남색	3.24A	3.56B	3.72C	3.50	12.21***	3.88	3.12	8.65**
진분홍색	3.69A	3.75A	3.72A	3.68	7.02	3.41	3.97	-7.96**
자주색	3.81A	3.77B	3.62B	3.73	10.87*	3.87	3.59	2.89
아청색 (진초록색)	3.69A	3.65A	3.59A	3.64	7.54	3.95	3.33	7.19**
연두색	3.77A	3.81A	3.86A	3.81	7.88	3.76	3.86	-2.19
색동	3.69A	3.89B	3.96B	3.84	11.96*	3.82	3.86	-1.69

*p ≤ .05 **p ≤ .01 ***p ≤ .001

12가지 색명 가운데 7가지 색상(녹색, 황색, 송화색, 연분홍색, 남색, 진분홍색, 아청색)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에서는 색동, 다홍색, 황색의 순서로, 30대와 40대는 색동, 다홍색, 옥색의 순서로 전통적인 한복색을 인식하였다. 남자와 여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색명은 녹색, 황색, 송화색, 연분홍색, 남색으로서, 남자집단이 가장 전통적이라 생각하는 한복색에 대해 황색, 다홍색, 색동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자집단의 경우에는 다홍색, 색동, 옥색의 순서로 전통적 한복색명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복의 색명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2가지 색명 가운데 7가지 색상(녹색, 옥색, 다홍색, 송화색, 남색, 자주색, 색동)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연분홍색, 30대와 40대는 다홍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분홍색상은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연령별 집단의 차이가 없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옥색은 20대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녹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한복의 색명은 녹색, 송화색, 남색, 진분홍색, 아청색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자집단은 다홍색, 아청색을, 여자집단은 다홍색, 연분홍색을 가장 선호하는 한복의 색명으로 응답하였다. 진분홍색에 대해 남자집단의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집단에서는 녹색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한복 유형에 따른 배색의 전통성 인식

한복의 전통배색으로 선정된 14가지 배색에 대해 자극물로 제작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두 유형에 따라 전통성 인식을 평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녹색과 다홍색, 송화색과 남색, 옥색과 남색, 황색과 남색 배색에 대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유

<표 7> 한복유형에 따른 배색의 전통성 차이 (연령대별 비교)

저고리-치마	연령	20대(n=132)			30대(n=148)			40대(n=80)			전체(n=360)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녹색-자주		2.25	2.19	1.84	2.35	2.27	1.97	2.41	1.37	11.44***	2.33	1.94	4.92*
연분홍-남색		4.15	3.82	5.19*	3.91	4.06	-2.42	3.99	4.15	-2.45	4.01	4.04	1-.01
녹색-다홍		4.25	3.78	6.89**	4.28	2.81	14.01**	4.19	2.82	13.01***	4.24	3.13	11.24***
황색-다홍		3.88	3.67	1.96	3.90	3.11	8.82**	3.99	2.86	12.24***	3.92	3.21	8.26*
송화-남색		2.82	3.21	-4.91*	3.85	3.01	9.58***	3.19	3.93	-8.61**	3.28	3.38	-2.13
옥색-남색		3.25	3.31	6.65**	3.02	2.61	5.28*	2.91	3.92	-11.43***	3.06	3.28	-3.09
색동1-다홍		3.81	3.61	2.09	3.59	2.78	9.01**	3.82	3.79	0.68	3.74	3.39	4.21*
진분홍-남색		3.56	3.31	2.21	3.58	4.05	-5.88*	3.45	3.06	4.59*	3.53	3.47	1.89
황색-남색		3.32	2.78	7.01**	3.47	3.93	5.80*	3.69	3.40	3.82*	3.49	3.37	2.41
송화색-다홍		2.78	2.73	0.83	3.10	3.78	-7.65*	3.19	2.88	4.78*	3.02	3.13	-2.48
옥색-자주		3.15	2.43	8.11***	3.91	3.80	2.25	3.99	4.01	-1.06	3.68	3.41	3.70
옥색-아청		3.02	2.79	1.85	3.61	3.70	-2.02	3.88	3.69	2.51	3.50	3.39	2.27
송화-아청		2.41	3.38	-10.61*	2.50	2.53	-0.95	2.35	3.87	-12.82***	2.42	3.26	-9.61**
색동2-다홍		4.07	4.12	-1.80	4.11	3.90	2.63	4.13	3.92	2.68	4.10	3.98	2.32

*p≤ .05 **p≤ .01 ***p≤ .001

형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한복 유형의 경우에는 녹색저고리와 다홍색치마의 배색에 대해 가장 전통적인 배색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활한복 유형에서는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에 대해 전통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황색저고리와 다홍색 치마, 진분홍색과 남색치마, 송화색 저고리에 다홍치마 배색은 30대와 40대 집단 내에서 한복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저고리에 자주색치마의 배색은 40대 집단 내에서만, 연분홍저고리와 남색치마, 색동1저고리와 다홍색치마의 배색은 30대 집단 내에서만, 옥색저고리와 자주색치마의 배색은 20대 집단 내에서만 한복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송화색저고리와 아청색치마의 배색은 20대와 40대 집단 내에서 한복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0대부터 40대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통한복 유형에 대해 녹색과 다홍치마의 배색을 가장 전통적

인 배색으로 평가하였으나, 생활한복 유형에서는 20대집단이 색동2저고리와 다홍치마배색을 가장 전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30대와 40대는 연분홍저고리와 남색치마에 대해 전통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복 유형에 따른 배색 선호도 평가

본 연구에 선정된 14가지 배색에 대해 한복 유형에 따른 배색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하여 생활한복과 전통한복 유형에 각각 적용된 14가지 배색의 한복 사진을 제시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14가지 배색 가운데 7가지 배색(연분홍-남색, 녹색-다홍, 황색-다홍, 옥색-남색, 옥색-자주, 옥색-아청, 색동2-다홍)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진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은 전통한복에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표 8> 한복 유형에 따른 선호배색의 차이 (연령대별 비교)

저고리 - 치마	20대(n=132)			30대(n=148)			40대(n=80)			전체(n=360)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전통 M	생활 M	t값
녹색-자주	3.20	3.87	-7.42*	3.56	3.72	-2.43	3.49	2.98	6.96*	3.41	3.52	-2.26
연분홍-남색	3.94	4.11	2.49	3.58	4.06	-5.90*	3.68	3.94	-3.78	3.73	4.03	-4.78*
녹색-다홍	2.82	2.56	2.13	3.89	3.09	9.49**	3.81	3.54	3.74	3.50	3.05	5.12*
황색-다홍	3.09	2.65	5.32*	3.67	2.99	7.81**	4.02	3.60	5.31*	3.59	3.08	6.96*
송화-남색	3.42	3.83	5.26*	3.78	3.55	3.17	3.81	3.42	4.91*	3.66	3.73	-1.92
옥색-남색	2.67	4.06	13.09***	3.05	3.23	-2.51	3.61	3.70	-1.09	3.11	3.66	-7.05**
색동1-다홍	3.78	3.28	6.82*	3.65	3.54	2.24	3.86	3.91	-1.81	3.76	3.57	2.89
진분홍-남색	4.04	3.81	3.09	3.88	3.93	-1.79	4.12	3.66	5.86*	4.01	3.80	3.13
황색-남색	2.99	2.61	4.85*	3.69	3.72	-0.96	3.82	3.88	-1.83	3.50	3.40	2.21
송화색-다홍	3.82	4.04	-3.15	4.01	3.77	3.75	3.90	3.80	2.23	3.91	3.87	1.69
옥색-자주	3.42	3.77	4.75	3.12	3.56	-5.09*	3.52	3.61	-2.02	3.35	3.65	-3.99*
옥색-아청	3.11	3.81	-7.91**	3.55	3.72	-2.31	3.21	3.49	-2.20	3.29	3.67	-4.85*
송화-아청	3.01	2.99	0.89	3.19	3.67	-5.91*	3.28	3.62	-4.81*	3.16	3.42	-3.69
색동2-다홍	3.91	3.62	3.15	3.89	3.12	7.74**	3.94	3.71	3.41	3.91	3.48	5.01*

*p≤ .05 **p≤ .01 ***p≤ .001

생활한복에서는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황색저고리와 다홍색치마는 20대, 30대, 40대 집단 내에서 한복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색으로 조사되었다. 녹색저고리와 자주색치마, 송화색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은 20대와 40대 집단 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송화색과 아청색은 30대와 40대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 녹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 옥색과 자주, 색동2 저고리와 다홍색치마의 배색은 30대 집단 내에서만 한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옥색에 남색, 색동1과 다홍, 황색과 남색, 옥색과 아청색의 배색은 20대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분홍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의 배색은 40대 집단 내에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대집단이 전통한복 유형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배색은 진분홍색 저고리와 남색 치

마이며 생활한복에서는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이다. 30대 집단은 전통한복에 송화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의 배색을, 생활한복에는 연분홍색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에서는 전통한복의 경우 진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 생활한복에서는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여 360명을 대상으로 한복유형에 따라 한복색과 배색의 인지도 및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설문지와 자극물을 이용한 조사연구법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산술평균,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느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복색명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선정된 12가지 색상을 자극물 없이 색명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연령별,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다홍색과 색동이 가장 높은 전통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색, 황색, 남색 또한 전통적인 한복의 색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가지 색명 가운데 7가지 색상(녹색, 황색, 송화색, 연분홍색, 남색, 진분홍색, 아청색)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5가지 색상(녹색, 황색, 송화색, 연분홍색, 남색)에 대해서는 성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전통적이라 평가한 한복의 색명은 색동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복의 색명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7가지 색상(녹색, 옥색, 다홍색, 송화색, 남색, 자주색, 색동)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0대는 연분홍색, 30대와 40대는 다홍색을 가장 선호하는 한복의 색명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연분홍색상은 연령별 집단의 차이가 없이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5가지 색상(녹색, 송화색, 남색, 진분홍색, 아청색)에 대해 성별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극물로 제작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두 가지 유형에 적용된 14가지 배색에 대한 전통성 평가 결과, 녹색저고리에 다홍색치마, 송화색저고리에 남색치마, 옥색저고리에 남색치마, 황색저고리에 남색치마의 배색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한복 유형은 녹색저고리와 다홍색치마의 배색에 대해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생활한복 유형은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에 대해 전통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한복의 유형이 달라지면 배색에 대한 전통성 인식의 평가도 다르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으며, 한복 디자이너와 업계는 제품 개발에 이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14가지 배색에 대해 한복 유형에 따른 배색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14가지 배색 가운데 7가지 배색(연분홍-남색, 녹색-다홍, 황색-다홍, 옥색-남색, 옥색-자주, 옥색-아청, 색동2-다홍)에 대해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진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은 전통한복에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생활한복 유형에서는 연분홍색 저고리와 남색치마의 배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생활한복의 경우 전통적인 느낌이 가장 높은 배색과 선호하는 배색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생활한복의 경우에도 한복이라는 전통적 기본 개념이 소비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활한복 디자인에 있어 전통적인 배색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복디자인에 사용되는 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추구하는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의 스타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복디자인과 한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의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한복 관련 자료정리 및 통계를 이용해 한복 마케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색상 및 배색의 개발과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접근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1) 정인희, 조효숙, 김선경 (1999).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식연구 (I): 소유 및 착용, 불만족 지각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1), pp.121-134.
- 2) 이주현, 김찬주, 유혜경, 홍나영 (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25(1), p.45.
- 3) 김찬주, 홍나영, 유혜경, 이주현 (2009). 현대 착용 한복의 색변화에 대한 중단적 연구, 복식, 59(2), p.60.

- 4) 최은영 (1999). 생활한복의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 45(-), pp.71-83.
- 5) 이영혜, 강순자 (2007).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배색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57(4), p.47.
- 6) 이지현 (2007). 조선시대 저고리의 색채 및 배색 특성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색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80.
- 7) 이영혜, 강순자. 위의 논문, pp.47-48.
- 8) 이현화 (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1):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pp.313-336.
- 9)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10)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1보): 툰툰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pp.731-742.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2보): 툰툰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443-453.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3보):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962-973.
- 11) 이영혜, 강순자. 앞의 논문, pp.47-59.
- 12) 김선아 (2008). 조선시대 치마·저고리 배색 특성에 관한 고찰: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2(1), pp.81-92.
- 13) 강경자, 최수경 (2005). 배색방법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툰툰 배색을 중심으로, 복식 문화연구, 13(5), pp.977-989.
- 14) 강혜란, 고애란 (1991).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211-227.
- 15) 강경자, 팽숙경 (2004). 한복의 툰툰 배색의 선호도 연구: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복식, 54(8), pp.15-26.
- 16) 김선아, 황춘섭 (2003). 한복의 전통배색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한복문화, 6(3), pp.41-55.
- 17) 강경자, 최수경 (2005). 한복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연구: 빨강저고리의 툰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pp.631-643.
- 18) 강경자, 성남숙 (2006). 노랑저고리와 치마색의 툰 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0(2), pp.65-80.
- 19) 색명은 김성대(1997), 김선아(2008)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 20) 황춘섭 (199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1), pp.119-129.
- 21) 백선원 (1989). 여성의류의 색채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120.
- 22) 김선아, 황춘섭. 앞의 논문, pp.45-46.
- 23) 저고리 7색(녹색, 황색, 다홍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옥색, 송화색)과 치마 4색(남색, 다홍색, 자적색, 아청색)조합으로 총 28배색과 색동저고리 2가지 유형과 다홍색 치마의 2배색을 합하여 총 30배색을 추출하였다.
- 24) CAD(Computer Aided Design) system을 이용해 scanning하여 한복형태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배색에 맞게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을 조각한 후 한복사진을 출력하였으며, 배경색상은 흰색으로 하였다. 출력에 사용된 칼라프린트는 Epson 인크젯프린터 CX9300F를 이용하였다.
- 25) 색동1은 원삼과 활옷유물에 남아있는 색동배색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색동2는 색동저고리 유물에 남아있는 색동배색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A Comparative Study on Color Coordination Preferences according to Hanbok Styles

Kim, Sun Ah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gnitive evaluation and preferences of traditional color coordination for hanbok styles: both traditional hanbok and saengwhal hanbok styles. In order to execute this study, 14 color combinations were selected as the main types of color combination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and were developed into a set of stimuli for the study. The research was implemented by normative-descriptive survey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and stimulus. The sample consisted of 360 adult men and women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lors of the hanbok considered to be most traditional were found to be saekdong jacket and deep red skirt. There was a difference in opinions about preferences of color coordination when designing a hanbok according to different genders and age groups. 2. The results found that consumers feel a color coordination of deep red and green to be more traditional.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ferences of traditional color coordination according to age and gender. 3. An evaluation of what types of color coordination are considered traditional found that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and the saengwhal hanbok. For traditional costumes the subjects preferred a green jacket with a deep red skirt and for the saengwhal hanbok, they preferred a bright pink jacket over a deep blue skirt. 4. Groups of different ages had different color coordination preferences and hanbok style preferences.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a more subdivided marketing strategy to enhance consumer satisfact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design application and collecting further data on color coordination for designing hanboks.

Key words: color coordination preferences, traditional hanbok, saengwhal hanbok, traditional Korean costume